

추나요법 치료 전후, 환자가 실시간 비교 가능

요즘 병원들은 환자중심,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같은 진료법이라도 보다 환자가 편하고 받을 수 있고, 진행과정과 결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나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 래서 환자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위한 병원들의 특허 개발도 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최근 추나요법 관련 특허를 받은 것도 이러한 미래 진료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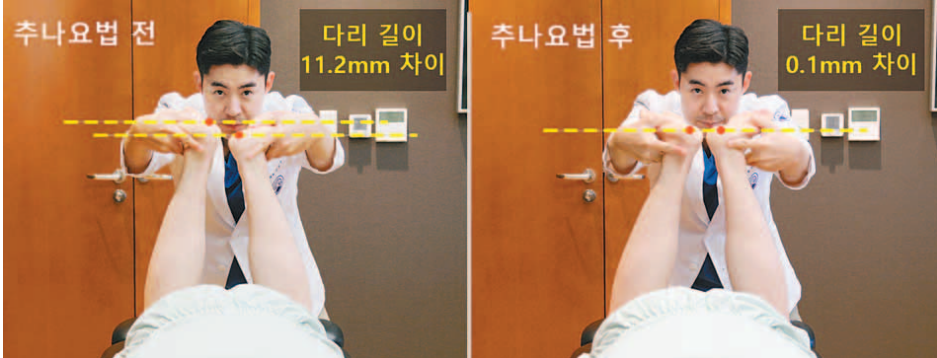
프로그램으로 정확한 교정 수치확인 보완 작업 후 실제 진료 적용 예정 신준식 박사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동물실험 모델로 연구 정확도 높여

●추나요법 시술 후 모니터로 확인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자신의 손과 신체 일부분으로 환자의 틀어진 뼈나 인대, 근육 등을 밀고 당겨 바로 잡는 전통적인 수기요법이다. 추나요법의 장점은 특정 환부 치료만이 아닌 전신 균형 회복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이다.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은 단순히 통증 부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균형이 틀어져 오랜 시간 뼈와 근육 등에 부담이 쌓여서 발생한다.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의 근본적 치료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추나요법은 신체 불균형 교정과 함께 이에 따른 근골격계 증상 완화 및 치료에 효과적이지만, 환자가 치료 전후 교정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한의사의 설명에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 신준식 박사가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술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추나요법의 효과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추나요법 전후 비교장치’ 화면. 사진제공 | 자생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은 추나요법의 진료 전후 효과를 환자가 화면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장치를 발명하고 특허권을 취득했다. 장치의 정식 명칭은 ‘추나요법 치료 전후의 비교자세를 보여주는 자세 비교장치 및 그 방법’(이하 ‘추나요법 전후 비교장치’)이다. 추나요법을 발굴해 재정립한 자생한방병원의 설립자 신준식 박사가 직접 고안했다.

‘추나요법 전후 비교장치’는 추나요법 치료 전과 후 상태를 실시간으로 촬영해 환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 골반이 불균형일 경우 양쪽 다리 길이에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러

면 얹드려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후 다리를 벌렸을 때 벌어지는 각도도 달라진다.

환자가 추나요법 시술대에 오르면 비교장치를 이용해 치료 전 환자의 양쪽 다리 길이와 벌어지는 각도를 촬영해 기록한다. 이후 추나요법 치료를 진행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개선된 상태를 재촬영한다. 환자는 시술대 옆의 화면을 통해 치료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추나요법 효과에 대해 한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장치에 내장된 프로그램으로 정확한 교정수치도 확인 가능하다.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특허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

는 추나요법 영역 확대 등 발명 보완 작업을 마무리한 뒤 실제 진료에 적용할 계획이다.

장치를 고안한 신준식 박사는 “환자들은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와 함께 자신이 받는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자생한방병원이 더욱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물실험 모델 특허도

자생한방병원은 ‘추나요법 전후 비교장치’ 외에도 척추와 관절 질환 치료법 개발을 위해 연구 개발을 통한 특허 출원을 계속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9월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의 치료법 개발을 위해 두 가지 동물실험 모델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두 건 모두 해당 치료법의 동물실험 모델에 대한 국내 최초의 특허다.

허리디스크 상태를 재현하는 동물실험 모델은 디스크 손상 및 염증 등 중증도 통제가 가능해 표준화된 모델로 활용하기 적합하다. 척추관협착증 관련 특허는 서로 다른 경도의 생체 실리콘을 동물의 척추관에 이식하는 모델로 신경 손상의 정도와 중증도를 조절해 기존 연구 모델에 비해 연구 진행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 자생한방병원은 특허 활동을 기반으로 근거 중심의 치료법을 고도화시키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척추관절연구소는 표준화된 척추관협착증 동물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척추관협착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P los One’에 발표하기도 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광동제약, ‘생수영업부문’ 임원 승진인사 실시



구준모 상무



이상일 상무



장동훈 상무

광 동 제 약 이 7일자로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생수 영업부문 기준 모 상무이사B

가 상무이사A로, 장동훈 의약개발부문장과 이상일 비서팀장이 상무이사B로 각각 승진했다. 장동훈 상무이사는 의약개발 부문장을, 이상일 상무이사는 경영지원 실장을 각각 맡게 된다. 생수영업부문 구준모 상무이사는 기존 생수 마케팅·영업 조직을 확장해서 담당한다. 광동제약은 이번 임원승진 인사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영환경에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계열사인 MRO전문기업 코리아이플랫폼도 1일 2사업본부 황석동 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최종우 교수, 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이사장 취임



최종우 교수

서울아산병원 최종우 성형외과 교수가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신임 이사장에 취임했다. 최종우 신임 이사장은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임상과장 및 국제진료센터 담당교수, 기획조정부실장을 맡고 있다. 현재 대한3D프린팅 융합의료학회, 대한컴퓨터가상수술학회 학술이사로 활동 중이다. 최종우 신임 이사장은 “원로 분들의 경험, 중견 의사들의 에너지 그리고 신진 의사들의 도전의식을 통합해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명지병원, 보건부 ‘의료질평가’ 2년 연속 1등급

명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료질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의료질평가’는 병원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해 의료기관별로 등급화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전국 35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진료실적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발표했다. 명지병원은 환자안전, 의료 질,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및 지원활동에서 최상위 등급인 ‘1-가 등급’을 받았다. 명지병원은 2020년 의료 질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

유사나, 간 건강 도움 건기식 ‘헤파실’ 제안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건강기능식품 ‘헤파실’(사진)을 추천했다. 피곤한 간에 활력을 제공하는 밀크씨슬추출물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주원료 밀크씨슬추출물은 ‘영경귀’라고도 불리는 국화와 식물로, 유럽에서 2000여 년 전부터 간 건강을 위해 섭취해 온 식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밀크씨슬추출물(실리마린)을 130mg 함유했다. 또한 일산화 신틸 성분인 브로콜리, 녹차, 심황, 올리브 추출물 등을 부원료로 함유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나잇살을 잡아라”…365mc ‘나잇살람스’ 프로그램 론칭

‘람스’ 새로운 지방추출주사 시술 “나잇살,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고 몸에 군살이 붙는, 일명 ‘나잇살’에 대한 고민은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갖는 고민이다.

비만클리닉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는 나잇살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둔 맞춤형 비만시술 프로그램 ‘나잇살람스’를 론칭했다.

람스(LAMS)는 ‘국소 마취 하 최소 침습

지방흡입주사 시술’의 줄임말이다. 지방세포를 뽑아내는 지방흡입 수술의 장점과 남은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분해 주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지방세포 제거 시술로 지방추출주사라고도 부른다.

365mc의 노원점에서만 단독 시행하는 ‘나잇살람스’는 피부 탄력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방분해 용액과 후관리 용액을 사용하는 람스 시술이다. 나잇살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노화에 따라 근육, 무기질, 수분 등은 점차 줄고 체지방량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골격근이 몸의 에너지

대사량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화에 의한 골격근 감소는 기초대사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노화에 의한 염증반응과 내분비적 변화는 근육량과 근육 기능의 감소를 촉진하고, 체지방 증가를 유발하게 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다

‘나잇살람스’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단단해진 지방과 셀룰라이트 제거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육량 확보와 피부 탄력 회복에 특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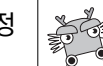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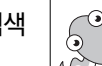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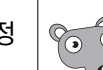
시술 프로그램을 구성한 365mc 노원점 채규희 대표원장은 “나잇살은 미리 관리



365mc 노원점 채규희 대표원장

하기보다 방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20대 시절의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신중하고 장기적으로 체중관리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2월 9일 (목) 음력: 11월 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나의 운기가 쇠해서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무리하게 뚫고 나가려 하지 말고 쇠운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한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오늘은 묘일로서 토끼의 날이다.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 때이다. 고통을 받던 사람도 이제부터는 상승일로에 있다. 자신 있게 밀고 나아가라. 오늘은 거꾸저를 중심으로 동쪽방향에 사는 사람과 초록색계통의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사리사욕을 떠나 정의를 관철해 갈 것, 또한 기반을 굳게 닦고 실행할 것, 가급적 폭력은 피하라.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장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첫 인상에서 좋게 느껴진 것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인간의 감각이 발동하는 날이므로 연애문제가 일어나기 쉽다. 토끼띠가 토끼를 만났으니 자중지란을 조심해야 한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 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육해상 일이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현재는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목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 된다. 이로 인해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때이나 모든 일에 지나치기 쉬우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이롭다. 급격하게 성하고 급세 쇠하는 경향이 있어 시기를 보는 바가 민감해야 한다. 오늘은 토끼날이다.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므로 미련이 생기는 일이라도 과감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나중엔 손해가 적다. 무슨 일든 앞장서지 말라. 욕심을 부리면 큰 재난이 온다. 오늘은 토끼의 날이다.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대부분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오늘은 토끼날이다.		셈물의 배는 물이 차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시기가 올 때까지는 체념하고 기다려야 할 때이다. 태연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은 토끼날로 재실일이다.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손해를 보면서 얻을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눈앞의 작은 이익을 버리고 먼 미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토끼날이다.		가까운 미래에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다.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 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20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